

중학생의 개인적 공정세상신념과 반응적 공격성의 관계: 훈육 구조와 분노의 매개 효과

이 유 미 이 승 연[†] 구 민 정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개인적 공정세상신념과 반응적 공격성의 관계를 훈육 구조(학급 내 훈육 공정성)와 분노가 매개하는지 확인함으로써 반응적 공격성의 기제를 이해하고 효과적인 개입방법을 모색하고자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서울·경기 지역 중학생 1-3학년 290명의 자기보고식 설문자료를 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개인적 공정세상신념과 반응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분노의 단순 매개 효과가 유의하였으며,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이 훈육 구조와 분노를 거쳐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이중 매개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인적 공정세상신념과 반응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훈육 구조의 단순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는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이 반응적 공격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분노 수준을 낮추거나, 학급 내 훈육이 공정하다는 지각을 증가시켜서 분노를 낮춤으로써 반응적 공격성을 감소시킬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효과적인 개입전략의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주요어 : 개인적 공정세상신념, 훈육 구조, 분노, 반응적 공격성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승연,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03760)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E-mail: slee1@ewha.ac.kr

Copyright ©2023, Korean Association of School Psycholog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공격성은 아동기부터 시작하여 청소년 초기에 급격히 증가하는데(이혜정 외, 2015), 이러한 공격성은 또래 괴롭힘, 비행, 폭력 행동, 청소년 범죄 등 다양한 부정적 결과와 연관된다(Tolan et al., 2000). 공격성은 크게 주도적 공격성과 반응적 공격성으로 나뉘며, 이 두 유형은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Dodge & Coie, 1987; Hubbard et al., 2010). 먼저, 주도적 공격성은 사회적 이득이나 지위와 관련된 목표 달성을 위해 공격적 행동을 하는 것이다. 즉, 외재적 보상에 대한 기대로 공격하기 때문에 죄책감이나 공감, 두려움이 결여되어있고(Acland et al., 2023; Euler et al., 2017), 목적 달성을 위해 자신이 지닌 자원이나 정서를 잘 통제하는 편이다(Hubbard et al., 2010). 잘 통제된 공격성은 또래집단에서의 사회적 지위 상승과 관련이 있다(Cillesen & Mayeux, 2004; Li & Wright, 2014). 반면, 반응적 공격성은 사회적 상황에서 지각한 타인의 위협이나 공격 등에 대한 방어적이고 보복적인 반응으로 정서와 충동조절의 어려움이 특징적이다. 조절되지 않은 충동적 공격 행동은 또래 관계에서 거부당할 위험을 증가시키고 갈등을 초래하며(Rodkin et al., 2015) 이로 인한 우울이나 불안, 약물사용, 학업수행 저하, 학교 부적응 등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Card & Little, 2006; Fite et al., 2014; Loveland et al.,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반응적 공격성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시기인 중학생(Bas & Yurdabakan, 2012)을 대상으로 이의 구체적 기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공정세상신념에 주목하였다. 공정세상신념(belief in a just world)은 이 세상이 공정한 곳이며, 누구든 자신이 노력한 만큼의 정당한 대우와 보상을 받을 것

이라는 믿음으로, 어릴 적 경험을 기반으로 형성되는 개인 고유의 인지 양식이자 안정적인 성격 특성이다(Lucas et al., 2007). 공정세상신념은 아동기 후반에 발달하기 시작하여,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인지 발달과 함께 일반적 및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으로 구분되기 시작한다(Dalbert & Sallay, 2004). 일반적 공정세상신념은 세상이 사람들에게 공정하며 사람들은 그들에게 마땅한 대우와 결과를 받는다는 믿음이며,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은 세상이 자신에게 공정하다는 믿음이다(Dalbert, 1999).

일반적 및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은 서로 독립적인데(Sutton et al., 2017), 먼저 일반적 공정세상신념은 일관되게 사회적 약자에 대해 비하하거나 부정적 태도를 갖는 것과 관련이 있고, 공격성과의 관계가 부적 관계로 나타나거나(Dalbert, 2002; Nesbit et al., 2012) 분명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 등(Bègue & Muller, 2006; Sutton & Winnard, 2007) 비일관적이다. 반면,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이 강한 것은 주관적 안녕감 증가와 우울 감소, 학교에 대한 더 긍정적인 태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친사회적 행동 증가와 관련 있을 뿐 아니라(Dalbert & Stoeber, 2006; Donat, Peter, et al., 2016; Kamble & Dalbert, 2012), 낮은 수준의 비행 의도 및 더 적은 공격 행동과 일관되게 관련이 있다(Bègue & Muller, 2006). 한편, 청소년기에 인지적 성숙으로 집단 구성원에 대한 부당한 대우나 차별을 더 잘 알아차리게 되며(Brown & Bigler, 2005), 이러한 불공정 경험을 더 많이 겪거나 관찰하게 됨에도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은 상대적으로 느리게 변화하여 더 안정적으로 개인의 적응과 대처를 돕게 된다(Dzuka & Dalbert,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중학생의 반응적 공격성을 설명하기 위해 개인적 공정

세상신념에 초점을 맞추었다.

공정세상신념은 여러 적응적 기능을 갖는데, 그 중 하나는 세상이 공정하다는 믿음이 강한 사람일수록 그러한 세상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정당하게 행동하도록 동기화시킨다는 것이다. 즉, 내가 정당하게 행동하면 언젠가는 공정하게 보상을 받게 된다는 믿음에 따라 정당하게 행동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세상신념이 강한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더 많이 도왔으며(Bierhoff et al., 1991),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이 강할수록 또래괴롭힘 상황에서 피해자를 방어하는 행동도 더 많이 보였다(송경희, 손연경, 이승연, 2018). 또한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이 강한 사람들은 규칙위반행동도 덜 보였는데(Correia & Dalbert, 2008), 특히,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이 강한 청소년들은 또래 괴롭힘 가해를 덜 했고(Donat, Umlauf, et al., 2012), 반사회적 행동이나 공격행동도 덜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Bègue & Muller, 2006).

그러나 지금까지 개인적 공정세상신념과 반응적 공격성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 한 예로, 10-16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Bègue와 Muller(2006)의 연구에서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이 강한 경우 반응적 공격성이 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문제행동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이 강한 것은 모호한 상황에서의 공격적 반응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상이 자신을 정당하게 대우하고 보상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타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할 수밖에 없으며(Dalbert, 2001), 스트레스적인 상황에서도 이를 자신에 대한 위협이기보다는 문제해결이 필요한 도전으로 재해석하거나 부당함을 축소 해석한다든지, 아니면 이에 대한 반응을 적게

하기 때문에(Dalbert, 2001), 이들이 반응적 공격성을 더 적게 보일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tto와 Dalbert(2005)의 연구에서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의 수준은 비행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에게서 차이가 없었다. 이처럼 일부 연구에서는 공정세상신념만으로는 공격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보고하고 있다(Naami et al., 2014). 사회정보처리 모델(Crick & Dodge, 1994)에 따르면, 일종의 인지 도식인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이 해석단계에서 작용하더라도 공격행동이 나타나기까지는 이후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여러 변인이 함께 작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이 어떤 경로로 반응적 공격성을 설명하게 되는지, 그 기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이 세상에 대한 지각과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은 아동기에 형성되기 시작하며 부모와 가정에서의 공정한 경험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albert & Salley, 2004). 이후 발달 과정에서 불공정한 경험이 특정 역치를 넘어서는 강도일 때에만 세상이 자신에게 공정하다는 도식을 변화(accommodation)시킬 수 있다고 설명되고는 있지만(Cubela Adoric & Kvartuc, 2007), 대개의 경우 사람들은 세상이 공정하다는 믿음에 자신의 경험을 동화(assimilation)시키는 경향이 더 강하다(Leary & Hoyle, 2009). 학교에서 다수의 학생이 살해되는 극단적인 불공정함을 목격한 후에 오히려 공정세상신념이 더 강화되었다는 연구 결과처럼(Stupnianeck et al., 2022),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이 단순히 공정함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에서 도출된 결과인

지, 아니면 세상이 공정하다는 믿음을 지키고 자 하는 동기와 더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Hafer & Sutton, 2016).

세상이 자신에게 공정한 곳이라는 믿음은 자신에게 닥칠 수도 있는 부정적 경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고, 세상을 예측 가능한, 안전한 곳으로 수용할 수 있게 하는 등 많은 적응적 이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믿음을 지키려고 동기화되고 자신의 믿음에 일치하게 세상을 해석하게 된다(Donat, Wolgast, et al., 2018). 따라서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이 강한 사람들은 현실 속 부당함을 축소시키거나 자신에게서 일부 원인을 찾는다는지, 이와 관련한 반추를 덜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며, 결과적으로 부당함으로 인한 분노나 적개심, 공격성은 줄어들고, 주관적 안녕감은 증가하게 된다(Dalbert & Stoeber, 2006).

이처럼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은 학생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며 또래와 긴밀히 상호작용하는 학교라는 환경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것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이 강할수록, 교사에게 더 공정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꼈으며, 전반적으로 교사의 행동에 대해 더 공정하게 평가하였다(Donat, Umlauf, et al., 2012; Donat, Wolgast, et al., 2018). 본 연구는 이와 관련하여, 학교풍토(school climate)의 하위 요인인 훈육 구조, 즉, 교사가 학교 규칙을 적용할 때 얼마나 공정하고 일관되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지각(Konold et al., 2014)에 초점을 맞추었다.

훈육에 있어서 규칙이 얼마나 공정하게 집행되는지에 대한 인식은 특히 공격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ehrhörst et al., 2019). 실제로 학생들이 학교 풍토를 공

정하며 지지적이라고 긍정적으로 지각할 때 공격행동을 더 적게 보였으며(da Cunha et al., 2021), 학교에서의 훈육이 엄격하고 지지적이라고 지각할 때 중학생들의 또래괴롭힘 가해 또한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Cornell et al., 2015). 마찬가지로 Li 외(2021)의 8-15세 대상 연구에서도 훈육이 엄격하게, 공정하게 적용된다고 지각할 때 더 낮은 수준의 공격성을 보고하였다. 국내연구에서도 긍정적인 학교 분위기가 집단 괴롭힘과 같은 공격행동의 감소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이창훈, 송주영, 2009).

Lind와 Tyler(1988)의 집단 가치 모델(group value model)에 따르면, 집단 내 공정한 절차와 대우는 집단 구성원에게 자신이 집단 내에서 중요한 존재이며 소속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제공한다(Smith et al., 2006). 즉, 학교 내에서 교사의 공정한 훈육과 대우는 학생들에게 자신이 존중받고 있으며 학교 공동체에 의미 있게 포함된다는 신호를 제공한다. 이에 따른 유대 형성은 학교의 친사회적 가치관을 내재화할 수 있게 하며,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통제를 가능하게 한다(Wang & Degol, 2016). 결과적으로 공정한 훈육의 분위기는 더 나은 학교 규칙의 준수, 비행과 문제행동의 감소, 공격적 행동의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Donat, Umlauf, et al.,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훈육 공정성을 더 많이 지각하는 것이 더 낮은 수준의 반응적 공격성을 예측할 것으로 가정하였는데, 이때 훈육 공정성의 지각은 앞서 설명했듯이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고 가정하였다.

한편, 분노는 부당함을 경험할 때 흔히 동반되는 감정이다(Horan et al., 2010).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단연구에 따르면, 학급

에서 교사에게 공정한 대우를 받는다는 인식이 결핍되면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분노를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Mameli et al., 2021), 대학생 대상의 한 질적 연구에서도 학교에서의 부당한 경험에 대해 가장 많이 언급된 감정 반응은 분노로 나타났다(Horan et al., 2010). 즉, 학교에서의 훈육이 불공정하고 비일관적이라고 여긴다면, 학생들은 더 많은 분노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이 강한 사람들은 분노를 유발하는 실험 상황에서도 화를 덜 냈는데(Dalbert, 2002), 이는 공정세상신념이 높은 경우 부당한 결과에 대한 원인을 외부 단서가 아닌 자신에게 귀인하게 되므로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감소하고 분노나 수치심 또는 불만 같은 부정적 정서 경험이 줄어들기 때문이다(Hafer & Correy, 1999). 선행연구에서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은 분노와 부적 상관이 있었으며(Dalbert, 2002), 교도소 수감자를 대상으로 한 Dalbert와 Filke(2007)의 연구에서도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이 강한 것은 법적 처리나 간수들에 의한 개인적 처우 뿐 아니라, 일반적인 교도소 정책 결정을 더 공정하게 지각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고, 이런 공정성의 지각은 낮은 수준의 분노와 연합되었다.

한편, 좌절-공격성 이론에 따르면, 분노와 적대감은 조절되지 않은 반응적 공격성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이다(Quan et al., 2022). 자신의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불공정함을 인식하는 상황에서 더 많은 분노가 일어나며 이런 분노 경험은 공격성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Giner-Sorolla & Maitner, 2013). 그리고 Beijersbergen 외(2015)의 종단 연구에서도 재소자들이 교정 당국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낄 때 분노를 더 많이 경험하였고,

분노를 느끼면 이후 위법 행위에 가담할 가능성이 더 증가하였다. 그러나 앞서 설명했듯이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이 강한 것은 일상생활에서 공정성을 더 많이 지각하게 만들고(Correia & Dalbert, 2007), 결과적으로 행동으로 분노를 표출할 가능성을 줄여주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Otto & Dalbert, 200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 집단에서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이 훈육의 공정성에 대한 지각을 늘리고, 분노를 감소시킴으로써 반응적 공격성을 줄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따라서 개인적 공정세상신념과 반응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훈육 구조와 분노의 매개 역할을 확인하고, 반응적 공격성의 예방 및 개입을 위한 효과적 방안을 고민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중학생의 개인적 공정세상신념과 반응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훈육 구조와 분노가 각각 매개효과가 있는가?
2. 훈육 구조와 분노는 개인적 공정세상신념과 반응적 공격성을 순차적으로 이중 매개하는가?

방 법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를 위해 서울과 경기지역 세 개 중학교에 재학 중인 31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자기 보고식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작성되었거나 응답이 누락된 경우를 제외하고, 총 290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남자 167명(57.6%), 여자 123명(42.4%)이 참여하였으며, 1학년은 82명(28.3%), 2학년은 116명(40.0%), 3학년은 92명(31.7%)이었다. 평균 연령은 14.03세이며($SD=0.78$), 학생들이 지각한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SES)은 5점 척도 상에서 평균 3.28점($SD=0.59$)으로 ‘중상’에 해당되었다.

측정도구

개인적 공정세상신념

Lipkus 외(1996)의 Belief in a Just World Scale for Self and Others를 손정아(2015)가 번안하였는데, 본 연구는 이중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을 측정하는 8문항을 사용하였다. 성인 대상으로 개발되긴 하였으나, 청소년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한 개 문항(‘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할 때, 내가 사람들에게 받을만한 존중감을 가지고 대한다고 생각한다.’)만 쉽게 수정하고(‘사람들은 내가 받아 마땅한 존중감을 가지고 나를 대한다’) 나머지는 그대로 사용하였다. 6점 리커트 척도(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6: 매우 동의한다)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을 둘러싼 세상이 자신에게 공정하다고 강하게 믿음을 의미한다. 최소영 외(2019)의 중학생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Cronbach's $\alpha=.89$ 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alpha=.89$ 였다.

훈육 구조

Konold 외(2014)가 개발한 척도 the Authoritative School Climate Survey를 송경희와 이승연(2018)이 번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중 훈육 구조 7문항만을 사용하였다. 학교의 규칙이 엄격하지만 누구에게나 공정하다는 학생들의 지각(예, 학교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받는 처

벌은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다)을 4점 리커트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4: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의 훈육 구조를 더 공정하다고 지각함을 의미한다. Konold 외(2014)의 중학교 2, 3학년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alpha=.77$ 이었으며, 초등 4학년을 대상으로 한 송경희와 이승연(2018)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alpha=.57$, 본 연구에서는 .73이었다.

분노

Aggression Questionnaire(Buss & Perry, 1992)를 번안한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권석만, 서수균, 2002) 척도 중 분노를 측정하는 7문항을 사용하였다(예, 때로 나는 이유 없이 갑자기 화가 난다). 5점 리커트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분노 경험이 많음을 의미한다.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한 김은경과 이정숙(2009)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alpha=.77$, 본 연구에서는 .78이었다.

반응적 공격성

Raine 외(2006)가 개발하고 오인수(2010)가 번안한 반응-선제적 공격성 설문지(Reactive-Proactive Aggression Questionnaire) 중 하위척도인 반응적 공격성 11문항(예, 상대방이 나를 괴롭히면 그들에게 소리를 지른다)을 사용하였다. 3점 척도(1: 전혀 하지 않는다-3: 자주한다)로 평정하며, 높은 점수는 평소 반응적 공격성을 자주 보임을 의미한다. 오인수와 임영은(2016)이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alpha=.80$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alpha=.79$ 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먼저, SPSS 21.0로 기술통계와 상관분석, 내적 합치도(Cronbach's α)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에는 *Mplus* 7.0을 사용하였으며 모형 추정을 위해 '완전 정보 최대 우도법(FIML)'을 사용하였다. 이때, 척도들의 측정 오차를 줄이고 안정적인 모형을 추정하기 위해 각 변인들을 요인 알고리즘 방식으로 문항 묶음화(item parcelling)하여 사용하였다(Little et al., 2002). 매개효과 유의성은 부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여 검정하였다.

($r=.48, p<.01$) 간에 정적 상관이 있었다. 반면,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은 분노($r=-.30, p<.01$), 반응적 공격성($r=-.22, p<.01$)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훈육 구조도 분노($r=-.25, p<.01$), 반응적 공격성($r=-.21, p<.01$)과 부적 상관이 유의하였다. 즉, 개인적 공정세상신념과 훈육 구조가 높을수록, 낮은 수준의 분노 또는 반응적 공격성과 연관되었다. 각 변인에서 성차를 확인하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든 변인에서 성차는 유의하지 않았다.

개인적 공정세상신념, 훈육 구조, 분노, 반응적 공격성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결과, 개인적 공정세상신념과 훈육 구조($r=.43, p<.01$), 분노와 반응적 공격성

먼저 측정변인들의 단변량 정규성을 확인한 결과 왜도는 .001~.522, 첨도는 -.353~.291로 Kline(2011)의 단변량 정규성 기준(왜도 $\leq |3|$, 첨도 $\leq |10|$)을 만족시켰다. 다음으로 Anderson과 Gerbing(1988)의 2단계 접근법에 따라 우선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chi^2(df=48, n=290)=70.815$,

표 1. 주요변인 간의 상관분석

(N=290)

	1	2	3	4
1. 개인적 공정세상신념	-	-	-	-
2. 훈육구조	.43**	-	-	-
3. 분노	-.30**	-.25**	-	-
4. 반응적 공격성	-.22**	-.21**	.48**	-
평균(M)	34.22	20.26	16.91	16.67
표준편차(SD)	6.07	3.19	4.56	3.57
왜도	.10	.00	.37	.52
첨도	-.03	.29	-.35	-.32

** $p<.01$

$p < .05$ 로 모형이 자료에 부합한다는 영가설은 기각하였지만, CFI는 .985, SRMR은 .039, RMSEA는 .040(90% CI: .017-.060)으로 좋은 적합도 기준을 만족시켰다(Hu & Bentler, 1999). 한편, 측정변인들의 요인부하값은 .60~.89로, Nunnally와 Bernstein(1994)의 요인부하량이 .5 이상이면 수렴타당도에 문제가 없다는 기준에 따라 수렴타당도를 확보하였다. 또한 잠재변인들 간의 상관계수가 .36~.57로, .9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Kline(2011)의 기준을 충족시키므로 변별타당도에도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2단계로 연구가설에 따른 구조방정식 모형을 추정하였다. 구조모형 분석 결과, 개인적 공정세상신념과 혼육 구조의 관계는 정적($\gamma = .486, p < .001$)으로 유의한 반면, 분노는 부적($\gamma = -.251, p < .01$)으로 유의하였다. 혼육 구조와 분노의 관계는 부적($\beta = -.229, p < .05$)으로 유의하였으며 분노와 반응적 공격성의 관계는 정적($\beta = .534, p < .001$)으로 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인적 공정세상신념과 반응적 공격성의 관계($\gamma = -.030, p = n.s.$)와 혼육 구조와 반응적 공격성의 관계($\beta = -.077, p = n.s.$)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높은 수준의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은 혼

육 구조를 정적으로 예측하며 분노를 부적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혼육 구조는 분노를 부적으로 예측하였고, 분노는 반응적 공격성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그러나 개인적 공정세상신념과 혼육 구조는 반응적 공격성을 직접적으로 예측하지는 않았다. 본 연구 모형에서 혼육 구조와 분노, 반응적 공격성을 예측하는 설명력은 각각 23.6%, 17.1%, 33.4%였다.

매개효과 분석

부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으로 원자료로부터 10,000개의 표본을 생성하여, 95% 신뢰구간에서 매개효과의 유의도를 검증하였다(MacKinnon et al., 2004). 그 결과,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이 분노를 거쳐 반응적 공격성을 예측하는 완전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95% CI: -.0116, -.0017). 그리고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이 혼육 구조와 분노를 순차적으로 거쳐 반응적 공격성을 예측하는 이중매개효과 역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95% CI: -.0056, -.0003). 반면 개인적 공정세상신념과 반응적 공격성 간의 관계를 혼육 구조가 매개하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95% CI: -.0056, 0.019).

표 2. 개인적 공정세상신념, 혼육구조, 분노, 반응적 공격성 경로계수

(N=290)

경로	비표준화	표준오차	표준화
개인적 공정세상신념 → 혼육구조	.211	.041	.486***
개인적 공정세상신념 → 분노	-.155	.049	-.251**
혼육구조 → 분노	-.325	.133	-.229*
개인적 공정세상신념 → 반응적 공격성	-.015	.037	-.030
혼육구조 → 반응적 공격성	-.088	.091	-.077
분노 → 반응적 공격성	.427	.076	.5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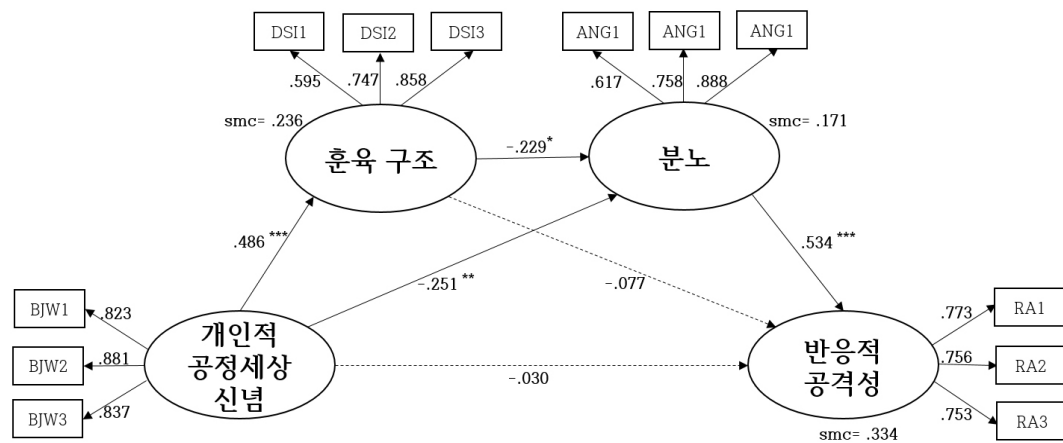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표 3.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N=290)

	경로	비표준화	표준오차	표준화	95% 신뢰구간
직접 효과	개인적 공정세상신념→반응적 공격성	-.015	.037	-.030	-.088~.058
간접 효과	개인적 공정세상신념→훈육구조→반응적 공격성	-.019	.019	-.037	-.056~.019
	개인적 공정세상신념→분노→반응적 공격성	-.066	.025	-.134**	-.116~-.017
	개인적 공정세상신념→훈육구조→분노→반응적 공격성	-.029	.014	-.059*	-.056~-.003

* $p < .05$, ** $p < .01$



* $p < .05$, ** $p < .01$, *** $p < .001$

주. 그림에 제시된 계수는 표준화된 수치임. 점선은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의미함.

그림 1. 연구모형의 매개효과

논 의

본 연구는 공격성이 가장 증가하는 시기인 중학생을 대상으로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이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의 구체적 기제를 밝히고자 개인적 공정세상신념, 훈육 구조, 분노, 반응적 공격성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이 반응적 공격성과 부적 상관을

보이기는 했지만, 연구 모형 검증 시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은 반응적 공격성을 직접적으로 예측하지는 못했다. 즉, 세상이 나에게 공정하다는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그 자체로 반응적 공격성이 감소하는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공정세상신념만으로는 공격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Naami 외(2014)의 결과와 일치하며, 사회정보처리 모델(Crick & Dodge, 1994)이 제안하는 것처럼 개인적 공정세상신념과 반응적 공격성의 부적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매개변인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

을 시사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은 분노의 수준을 낮춤으로써 반응적 공격성 감소에 기여하였으며, 그 효과는 연구 모형의 간접효과 중 가장 강력한 것이었다. 분노는 반응적 공격성을 높이는 핵심 정서이자(White & Turner, 2014; Wilkowski & Robinson, 2010), 불공정한 상황을 경험할 때 한국인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정서이다(한민, 류승아, 2018). 한편, 개인적 공정세상신념과 분노는 부적 상관이 있으며(Dalbert, 2002),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이 강할수록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에 적게 분노하고 분노 반응을 더 잘 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tto & Dalbert, 2005). 국내연구에서도 행동 점화 과정을 통해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이 활성화되는 경우 부정 정서가 낮아졌고(김은하, 정보현, 2018),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이 강한 중학생의 경우 분노를 더 적게 경험하여 반응적 공격성이 감소하였다(최소영 외, 2019). 여러 불공정한 경험에 노출됨에도 세상이 공정하다는 신념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동기는 특히 세상이 자신에게 공정하다는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을 더 오래 유지하도록 만드는데(Dzuka & Dalbert, 2007), 이를 통해 분노를 약화시켜 반응적 공격성도 낮추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을 증진시키도록 개입하여 분노 수준을 낮추는 것이 반응적 공격성의 감소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임을 시사한다. 보통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은 어렸을 때 가정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형성된다고 알려져 있으며(Dalbert, 2001), 부모로부터 정당하게 대우받았던 반복된 경험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부모 교육을 통해 아동의 행동에 일관되고 정당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효과

적인 훈육 기법을 훈련시키는 것이 발달 초기부터 아동의 개인적 공정세상신념 형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훈육 구조가 반응적 공격성을 직접 예측하는 경로가 유의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개인적 공정세상신념과 반응적 공격성 사이에서 훈육 구조의 단순매개 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연구가설과 일치하게 세상이 나에게 공정하다는 믿음이 강한 것이 학급에서의 훈육이 공정하게 진행된다는 지각을 늘리기는 했지만, 훈육 공정성의 지각이 반응적 공격성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는 학급 내에서 훈육이 불공정하다고 느끼거나 지각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반응적 공격성에 영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반응적 공격성을 예측하는데 사회인지 측면만을 고려해서는 한계가 있으며 좌절-공격 이론을 기반으로 분노 같은 정서 변인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제기했던 연구들(예, Wilkowski & Robinson, 2010)로 뒷받침 될 수 있다. 선행 연구들에서는 불공정한 상황에서 어떤 정서를 느끼는지가 이후 공격성을 예측하는데 결정적 단서가 되며, 불공정한 상황을 경험할 때 나타나는 여러 정서 중 분노를 느낄 때만 공격성이 발현됨이 확인된 바 있다(Giner-Sorolla & Maitner, 2013; Hafer & Correy, 1999).

실제로 일상에서 형제자매에 대한 부모의 차별대우와 편애가 흔한 일임에도, 대부분의 아동이 항상 분노를 느끼고 적대적으로 행동하지는 않는다. 즉, 대부분의 아동들은 형제간의 나이 차이를 고려하거나 성격 특성, 욕구 등에 따라 부모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 이와 관련한 부적응을 경험하지 않는다(Kowal & Kramer, 1997). 또한

학급 안에서의 불평등한 경험과 지각은 분노 이외에도 우울, 슬픔, 실망, 수치심 등 다양한 정서를 느낄 수 있게 만들며(Cooper et al., 2022; Giner-Sorolla & Maitner, 2013; Rasooli et al., 2019) 불공정에 대해 어떤 정서를 느끼는가에 따라 각기 다른 행동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만약 교사가 학생들에게 불공정하게 훈육하더라도 학생들이 이러한 학급 분위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거나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를 바꿀 수 없다고 낙담하여 포기한다면, Cooper 외(2022)의 흑인 청소년 연구나 Wang과 Arwal(2015)의 아시아계 미국 청소년 연구에서 처럼, 학교의 차별과 불평등 경험이 더 높은 우울 증상을 예측할 수도 있다. 즉, 훈육 구조의 불공정성에 대한 지각이 항상 반응적 공격성만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정서를 경험하는지가 결정적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본 연구 결과에서도 개인적 공정세상신념과 반응적 공격성의 관계를 훈육 구조와 분노 변인이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반응적 공격성의 설명을 위해서는 인지와 정서 변인 모두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 즉, 반응적 공격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을 증가시켜서, 학급에서의 훈육이 공정하다는 지각을 늘리고 이에 따라 분노를 덜 경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의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이 강할수록 교사들의 행동을 더 공정하게 받아들이며(Berg & Cornell, 2016; Donat, Umlauf, et al., 2012), 자신이 학급에서 교사에게 공정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낄수록 분노를 덜 느끼고(Mameli et al., 2021), 분노의 감소는 보복적인 충동적 공격성으로 반응할 가능성을 줄이게

된다는 연구 결과(Jambon et al., 2019; Wilkowski & Robinson, 2010)와 일치한다.

훈육 공정성에 대한 지각과 분노의 이중매개효과는 학급 내 훈육의 불공정성을 지각함으로써 인해 생겨나는 분노가 반응적 공격성 증가에 기여함을 의미하며, 반응적 공격성의 예방 및 개입을 위해서는 학교 전반의 풍토를 개선하려는 시도가 동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개입 및 지원(school-wide positive behavioral intervention and support, Horner et al., 2009)에서 강조하듯이, 문제행동을 줄이기 위해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기대를 확립하고 이의 준수를 적극적으로 강화하며 기대를 위반한 행동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나 일관되고 공정한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불만과 분노를 줄이고, 학생들 스스로 규칙에 맞게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가정 환경에서 엄격한 훈육과 정서적 지지의 조합인 권위적 양육 태도가 효과적인 것처럼, 규칙 적용의 공정성과 일관성으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정서적으로 지지적인 학교 풍토에서, 학생들은 더 안정감을 느끼며, 싸움이나 비행 행동, 위협 행동에도 덜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된다(Donat, Dalbert, et al., 2014). 훈육의 불공정성을 지각함으로써 야기되는 불만과 분노는 특히 독립적 개인으로 존중받고 정당하게 다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할 때 개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훈육 공정성의 지각에 학생 개개인이 지닌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이 관여함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공정성의 지각은 항상 주관적이며, 객관적 현실의 정확한 반영이 아니다(Mikula, 2005).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이 강할 경우, 이를 유지하기 위해 불공정을

경험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자신의 잘못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불공정을 과소평가한다든지, 이에 대한 반추를 제한하게 되며, 다양한 맥락과 상황에서 공정함을 더 많이 지각하게 된다(Dalbert & Filke, 2007). 즉,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이 강한 경우 일반적인 학급 환경에 대해서도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게 되는데(Otto & Dalbert, 2005),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이 강한 재소자들이 자신과 관련된 법적 처리나 간수들에 의한 처우뿐 아니라, 교정기관의 일반적 정책 결정에 대해서도 더 공정하다고 판단했던 것과 같은 결과이다(Dalbert & Filke, 2007). 그러나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데, 아무리 공정성에 대한 지각이 주관적이라 해도 세상이 ‘자신에게’ 공정하다는 믿음으로 인해 공정하지 않은 학급환경까지도 공정하다고 해석하게 만든다면 결국 이러한 사람들이 불의를 무시하고 어떤 정의로운 행동도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서도 설명했듯이,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이 강한 것은 자신이 정당하게 보상받기 위해서라도 불공정한 상황에서 공정성을 회복시키려 하는 강한 동기를 만들어 내며, 피해자에 대한 방어행동을 늘리고 친사회적 행동을 증가시키는 등의 긍정적 효과로 이어진다(Furnham, 2003). 오히려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이 약하게 형성되었을 때 세상의 불공정이나 자신의 피해에 더욱 민감하게 되고 사람들의 행동이나 의도를 불공정하거나 적대적인 것으로 잘못 해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에서 더 많은 일탈 행동과 공격성을 보이게 된다는 결과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Okonofua et al., 2016).

한편, 훈육 구조의 공정성을 지각하는 것은 분노 수준을 낮추는 데 중요하게 작용했을 뿐

아니라, 분노는 개인적 공정세상신념과 반응적 공격성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매개변인이었다. 따라서 반응적 공격성을 예방하기 위해 분노를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 개입의 필요성이 부각 된다. 최근 선행 연구에서는 분노를 조절하기 위해 실행기능에 주목하였다. 의도적 통제능력이 높을수록 분노의 강도를 낮추고 지속 시간을 감소시켜 반응적 공격성을 줄일 수 있었고(Wilkowski & Robinson, 2010), 분노가 반응적 공격성으로 표현되는 것을 직접적으로 조절할 수도 있음이 확인되었기에(DeWall et al., 2007) 의도적 통제능력의 향상은 분노 조절에 있어 효과적인 개입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중학생들에게 흔히 관찰되는 반응적 공격성의 기제를 이해하기 위해, 불공정성에 더욱 민감해지는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에 주목했다는 차별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개인의 인지적, 정서적 특징과 함께 학생들이 지각한 학급 맥락의 특성, 즉, 훈육 구조까지도 통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청소년의 반응적 공격성 감소를 위해서는 공정성과 관련된 인지적 처리 과정이나 개인적 신념의 변화가 중요하며, 동시에 정서 변인인 분노의 조절도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개인 수준의 개입 뿐 아니라, 사회적 맥락인 학교 차원에서의 개입이 중요함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를 지닌다.

이같은 본 연구의 차별성과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먼저, 본 연구는 횡단 연구이므로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논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종단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공정세상신념과 학급 전체에서의 훈육 공정성에 대한 지각 간의 관계에 주목했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자신이 경험한 훈육 공정성으로 제한하여 보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반응적 공격성에 있어서 개인적 공정세상신념과 훈육 구조 및 분노의 효과를 살펴본 연구로 일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비행 청소년 등 공격성이 높은 대상에서도 본 연구와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지 반복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자기 보고식 설문지만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사회적 바람직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기에 결과의 해석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권석만, 서수균 (2002).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2), 487-501.

김은경, 이정숙 (2009). 아동의 학대경험이 정서와 인지적 편향을 매개로 우울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2(3), 1-18.

김은하, 정보현 (2018).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점화가 긍정 정서, 부정 정서, 삶의 만족도, 가난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9(2), 323-342.

손정아 (2015). 개인의 지각된 취약성과 공정세상신념이 기부결정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송경희, 이승연 (2018). 초등학교의 도덕 추론과 또래괴롭힘 방어행동: 학급 수준 특성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1(2),

83-103.

송경희, 손연경, 이승연 (2018). 중학생의 개인적 공정세상신념, 인지적 재평가, 또래괴롭힘 방어행동의 관계: 집단효능감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5(3), 489-509.

오인수 (2010). 괴롭힘을 목격한 주변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 공감과 공격성을 중심으로. *초등교육연구*, 23(1), 45-63.

이창훈, 송주영 (2009). 집단 괴롭힘(Bullying)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 한국과 미국의 비교 연구. *한국범죄학* 3(2) 103-143.

이혜정, 위슬아, 김범준 (2015). 공격성과 비행에 관한 연구-남녀 차이와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0(4), 675-695.

최소영, 이승연, 이유미 (2019). 중학생의 피해자 정의민감성, 개인적 공정세상신념과 반응적 공격성의 관계: 분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6(3), 197-224.

한민, 류승아 (2018). 부당한 상황에서 경험되는 정서의 문화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4(2), 251-272.

Acland, E. L., Peplak, J., Suri, A., & Malti, T. (2023). Emotion recognition links to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across childhood: A multi-study desig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12.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Bègue, L., & Muller, D. (2006). Belief in a just world as moderator of hostile attributional bia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5(1),

- 117-126.
- Behrhorst, K. L., Sullivan, T. N., & Sutherland, K. S. (2019). The impact of classroom climate on aggression and victimization in early adolescence.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40(5), 689-711.
- Beijersbergen, K. A., Dirkzwager, A. J. E., Eichelsheim, V. I., Van der Laan, Peter H., & Nieuwebeerta, P. (2015). Procedural justice, anger, and prisoners' misconduct: A longitudinal study.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42(2), 196-218.
- Berg, J. K., & Cornell, D. (2016). Authoritative school climate, aggression toward teachers, and teacher distress in middle school. *School Psychology Quarterly*, 31(1), 122-139.
- Bierhoff, H. W., Klein, R., & Kramp, P. (1991). Evidence for the altruistic personality from data on accident re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59(2), 263-280.
- Brown, C. S., & Bigler, R. S. (2005). Children's perceptions of discrimination: A developmental model. *Child Development*, 76, 533-553.
- Buss, A. H., & Perry, M. (1992).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3), 452-459.
- Card, N. A., & Little, T. D. (2006). Proactive and reactive aggression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A meta-analysis of differential relations with psychosocial adjust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0(5), 466-480.
- Gillissen, A. H., & Mayeux, L. (2004). From censure to reinforcement: Developmental changes in the association between aggression and social status. *Child Development*, 75(1), 147-163.
- Cooper, S. M., Burnett, M., Golden, A., Butler Barnes, S., & Inniss Thompson, M. (2022). School discrimination, discipline inequities, and adjustment among Black adolescent girls and boys: An intersectionality informed approach.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32(1), 170-190.
- Cornell, D., Shukla, K., & Konold, T. (2015). Peer victimization and authoritative school climate: A multilevel approac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07(4), 1186-1201.
- Correia, I., & Dalbert, C. (2007). Belief in a just world, justice concerns, and well-being at Portuguese schools.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y of Education*, 22(4), 421.
- Correia, I., & Dalbert, C. (2008). School bullying: Belief in a personal just world of bullies, victims, and defenders. *European Psychologist*, 13(4), 248-254.
- Crick, N. R., & Dodge, K. A. (1994). A review and reformulation of social information-processing mechanisms in children's social adjustment. *Psychological Bulletin*, 115(1), 74.
- Cubela Adoric, V., & Kvartuc, T. (2007). Effects of mobbing on justice beliefs and adjustment. *European Psychologist*, 12(4), 261-271.
- da Cunha, J. M., Thomas, K. J., Sukhawathanakul, P., Santo, J. B., & Leadbeater, B. (2021). Socially responsible children: A link between school climate and aggression and victimiz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45(6), 504-512.
- Dalbert, C. (1999). The world is more just for me

- than generally: About the personal belief in a just world scale's validity. *Social Justice Research*, 12(2), 79-98.
- Dalbert, C. (2001). *The justice motive as a personal resource: Dealing with challenges and critical life events..* New York: Kluwer Academic/Plenum Publishers.
- Dalbert, C. (2002). Beliefs in a just world as a buffer against anger. *Social Justice Research*, 15(2), 123-145.
- Dalbert, C., & Filke, E. (2007). Belief in a personal just world, justice judgments, and their functions for prisoner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34(11), 1516-1527.
- Dalbert, C., & Sallay, H. (Eds.). (2004). *The justice motive in adolescence and young adulthood. Origins and consequences (Vol. 8)*. Routledge.
- Dalbert, C., & Stoeber, J. (2006). The personal belief in a just world and domain-specific beliefs about justice at school and in the family: A longitudinal study with adolesc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0(3), 200-207.
- Dewall, C. N., Baumeister, R. F., Stillman, T. F., & Gailliot, M. T. (2007). Violence restrained: Effects of self-regulation and its depletion on aggress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3(1), 62-76.
- Dodge, K. A., & Coie, J. D. (1987). Socialinformation-processing factors in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children's peer grou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1146-1158.
- Donat, M., Dalbert, C., & Kamble, S. V. (2014). Adolescents' cheating and delinquent behavior from a justice-psychological perspective: The role of teacher justice.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y of Education*, 29(4), 635-651.
- Donat, M., Peter, F., Dalbert, C., & Kamble, S. V. (2016). The meaning of students' personal belief in a just world for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of school-specific well-being. *Social Justice Research*, 29(1), 73-102.
- Donat, M., Umlauf, S., Dalbert, C., & Kamble, S. V. (2012). Belief in a just world, teacher justice, and bullying behavior. *Aggressive Behavior*, 38(3), 185-193.
- Donat, M., Wolgast, A., & Dalbert, C. (2018). Belief in a just world as a resource of victimized students. *Social Justice Research*, 31(2), 133-151.
- Dzuka, J., & Dalbert, C. (2007). Student violence against teachers: Teachers' well-being and the belief in a just world. *European Psychologist*, 12(4), 253-260.
- Euler, F., Steinlin, C., & Stadler, C. (2017). Distinct profiles of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adolescents: Associations with cognitive and affective empathy.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and Mental Health*, 11, 1-14.
- Fite, P. J., Rubens, S. L., Preddy, T. M., Raine, A., & Pardini, D. A. (2014). Reactive/proactive aggression and the development of internalizing problems in males: The moderating effect of parent and peer relationships. *Aggressive Behavior*, 40(1), 69-78.
- Furnham, A. (2003). Belief in a just world: Research progress over the past decad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4(5),

- 795-817.
- Giner-Sorolla, R., & Maitner, A. T. (2013). Angry at the unjust, scared of the powerful: Emotional responses to terrorist threa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9(8), 1069-1082.
- Hafer, C. L., & Correy, B. L. (1999). Mediators of the relation between beliefs in a just world and emotional responses to negative outcomes. *Social Justice Research*, 12(3), 189-204.
- Hafer, C. L., & Sutton, R. (2016). *Belief in a just world. Handbook of social justice theory and research*, 145-160. Springer.
- Hu, L.,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1), 1-55.
- Hubbard, J. A., McAuliffe, M. D., Morrow, M. T., & Romano, L. J. (2010).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Precursors, outcomes, processes, experiences, and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78(1), 95-118.
- Horan, S. M., Chory, R. M., & Goodboy, A. K. (2010). Understanding students' classroom justice experiences and responses. *Communication Education*, 59(4), 453-474.
- Horner, R. H., Sugai, G., Smolkowski, K., Eber, L., Nakasato, J., Todd, A. W., & Esperanza, J. (2009). A randomized, wait-list controlled effectiveness trial assessing school-wide positive behavior support in elementary schools. *Journal of Positive Behavior Interventions*, 11(3), 133-144.
- Jambon, M., Colasante, T., Peplak, J., & Malti, T. (2019). Anger, sympathy, and children's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Testing a differential correlate hypothesi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7(6), 1013-1024.
- Kamble, S. V., & Dalbert, C. (2012). Belief in a just world and well being in Indian school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47(4), 269-278.
-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rd ed.). Guilford Press.
- Konold, T., Cornell, D., Huang, F., Meyer, P., Lacey, A., Nekvasil, E., Heilbrun, A., & Shukla, K. (2014). Multilevel multi-informant structure of the Authoritative School Climate Survey. *School Psychology Quarterly*, 29(3), 238-255.
- Kowal, A., & Kramer, L. (1997). Children's understanding of parental differential treatment. *Child Development*, 68(1), 113-126.
- Leary, M. R., & Hoyle, R. H. (Eds.). (2009). *Belief in a just world. Handbook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social behavior*, 288-297. Guilford Press.
- Li, Y., & Wright, M. F. (2014). Adolescents' social status goals: Relationships to social status insecurity, aggression, and prosocial behavior.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3, 146-160.
- Li, Z., Yu, C., & Nie, Y. (2021). The association between school climate and aggression: A moderated mediation model.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8(16), 8709.
- Lipkus, I. M., Dalbert, C., & Siegler, I. C. (1996). The importance of distinguishing the belief in a just world for self versus for others:

- Implications for psychological well-be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2(7), 666-677.
- Little, T. D., Cunningham, W. A., Shahar, G., & Widaman, K. F. (2002). To parcel or not to parcel: Exploring the question, weighing the merit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2), 151-173.
- Loveland, J. M., Lounsbury, J. W., Welsh, D., & Buboltz, W. C. (2007). The validity of physical aggression in predicting adolescent academic performance.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7(1), 167-176.
- Lucas, T., Alexander, S., Firestone, I. J., & Lebreton, J. M. (2007).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a procedural and distributive just world measur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3(1), 71-82.
- MacKinnon, D. P., Lockwood, C. M., & Williams, J. (2004). Confidence Limits for the Indirect Effect: Distribution of the Product and Resampling Method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39(1), 99-128.
- Mikula, G. (2005). Some observations and critical thoughts about the present state of justice theory and research. In S. Gilliland, D. Steiner, D. Skarlicki, & K. van den Bos (Eds.), *What motivates fairness in organizations* (pp. 197-209). Greenwich, CT: Information Age.
- Naami, A., Asgari, P., & Roshani, K. (2014). Predicting Collegiate Students' Aggression Based on the Amount of Forgiveness and Their Belief in a Just/Unjust World. *Journal of Life Science and Biomedicine*, 4(1), 4-8.
- Nesbit, S. M., Blankenship, K. L., & Murray, R. A. (2012). The influence of just-world beliefs on driving anger and aggressive driving intentions. *Aggressive Behavior*, 38(5), 389-402.
- Nunnally, J. C., & Bernstein, I. H. (1994). *Psychometric Theory* (2nd ed). New York: McGraw-Hill.
- Okonofua, J. A., Walton, G. M., & Eberhardt, J. L. (2016). A vicious cycle: A social-psychological account of extreme racial disparities in school discipline.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11, 381-398.
- Otto, K., & Dalbert, C. (2005). Belief in a just world and its functions for young prisoner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9(6), 559-573.
- Quan, F., Wang, L., Gong, X., Lei, X., Liang, B., & Zhang, S. (2022). Hostile attribution bias and anger rumination sequentially mediate the association between trait anger and reactive aggression. *Frontiers in Psychology*, 12: 778695.
- Raine, A., Dodge, K., Loeber, R., Gatzke-Kopp, L., Lynam, D., Reynolds, C., Stouthamer-Loeber, M., & Liu, J. (2006). The reactive-proactive aggression questionnaire: Differential correlates of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adolescent boys. *Aggressive Behavior*, 32(2), 159-171.
- Rasooli, A., DeLuca, C., Rasegh, A., & Fathi, S. (2019). Students' critical incidents of fairness in classroom assessment: An empirical study. *Social Psychology of Education*, 22, 701-722.
- Rodkin, P. C., Espelage, D. L., & Hanish, L. D. (2015). A relation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bullying: Developmental

- antecedents and outcomes. *American Psychologist*, 70(4), 311-321.
- Smith, H. J., Thomas, T. R., & Tyler, T. R. (2006). Concrete construction employees: When does procedural fairness shape self-evaluation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6(3), 644-663.
- Stupnianeck, K., Wu, M. S., & Schmitt, M. (2022). A school rampage threatens beliefs in justice: A longitudinal study of the belief in a just world among Chinese adolescents. *Journal of Personality*, 90(5), 690-702.
- Sutton, R. M., Stoeber, J., & Kamble, S. V.(2017). Belief in a just world for oneself versus others, social goals, and subjective well-be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13, 115-119.
- Sutton, R. M., & Winnard, E. J. (2007). Looking ahead through lenses of justice: The relevance of just-world beliefs to intentions and confidence in the future.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6(3), 649-666.
- Tolan, P. H., Gorman-Smith, D., & Loeber, R. (2000). Developmental timing of onsets of disruptive behaviors and later delinquency of inner-city youth.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9(2), 203-22.
- Wang, C., & Atwal, K. (2015). School climate, discrimination,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Asian American adolescents. *Contemporary School Psychology*, 19, 205-217.
- Wang, M., & Degol, J. L. (2016). School climate: A review of the construct, measurement, and impact on student outcomes.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28(2), 315-352
- White, B. A., & Turner, K. A. (2014). Anger rumination and effortful control: Mediation effects on reactive but not proactive aggress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6, 186-189.
- Wilkowski, B. M., & Robinson, M. D. (2010). The anatomy of anger: An integrative cognitive model of trait anger and reactive agg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78(1), 9-38.

원 고 접 수 일 : 2023. 06. 26.

수정 원고접수일 : 2023. 09. 25.

최종 게재 결정일 : 2023. 10. 12.

Relations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Personal Belief in a Just World and Reactive Aggression: Mediating Effects of Disciplinary Structure and Anger

Yu-mi Lee Seung-yeon Lee Min-jung Koo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mechanisms of reactive aggression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For this purpose, the effect of personal belief in a just world (PBJW) was examined, with the consideration of disciplinary structure (classroom discipline fairness) and anger as mediators. For this purpose, self-report data from 290 middle school students (grade 1 to 3)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were analyz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results indicated that anger had a simple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BJW and reactive aggression. A dual mediating effect was also significa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BJW and reactive aggression, which is through disciplinary structure and anger in order. However, the simple mediation effect of discipline structure was not significant. PBJW did not directly influence reactive aggres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PBJW can reduce reactive aggression either by lowering the level of anger directly or by reducing anger as a result of increased perception of disciplinary fairness. This paper discusses these findings' implications for developing reactive aggression intervention strategies.

Key words : personal belief in a just world, disciplinary structure, anger, reactive aggression